

문화

리뷰 - 5·18 뮤지컬 '화려한 휴가'



도청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배우도 관객도 함께 울었다

아들의 싸늘한 시신을 만지며 울 부짖는 눈먼 어머니. 그녀를 지켜 보던 여주인공이 신에게 광주를 보살펴달라고 절규하며 노래 할 때 객석은 함께 흐느꼈다.

난 꿈에' 등 서정적인 멜로디의 넘버와 '광주 내 사랑' 등은 오랫동안 귓가에 맴도는 노래다.

람의 시작, 헤어짐의 애뜻함, 신애와 아버지의 이별, 민우의 죽음 등 주인공들을 둘러싼 에피소드와 뮤지컬 넘버가 좀 더 풍성했다면 다소 지루한 분위기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 '5·18 현장'을 많이 보여주겠다는 욕심에 대규모 군중신이 너무 잦아 작품의 비장감과 웅장함이 반감되고 도식적인 장면이 연출된 점은 아쉬웠다.

공연 후에는 기립박수가 쏟아졌다. 하지만 이 박수는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찬사이기 보다는 '격려'와 '감사'의 의미가 강했다.

광주 대표문화콘텐츠로의 가능성을 보인 '화려한 휴가'는 광주와 어른 세대를 벗어나, 5·18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와 타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뮤지컬'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웅장한 음악 역동적인 춤 배우들 연기·노래 인상적 긴 러닝타임에 지루함도 광주 공연 19일까지 계속

이후 뮤지컬은 원작인 영화 '화려한 휴가'의 스토리를 충실히 따라간다. 1막에서는 수줍게 시작하는 민우와 신애의 사랑, 민우와 진우의 형제애, 동네 사람들의 사연들이 가슴 따뜻하게 그려진다.

5·18 이야기 콘서트

22일 5·18문화관 '오월누리제- 빛·노래·꽃·사람'

오지혜·김규향·도종환·'봄여름가을겨울' 등 출연



오지혜

김규향

봄·여름·가을·겨울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한 '2010 오월누리제- 빛·노래·꽃·사람'이 열린다.

22일 오후 7시부터 5·18기념문화관 민주홀에서 열리는 '이야기 콘서트'는 영화배우 오지혜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야기 손님은 'B급 좌파', '나는 왜 불온한가' 등을 펴낸 칼럼니스트 김규향과 '집시당 당신'의 시인 도종환이다.

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등으로 유명한 2인조 그룹 '봄·여름·가을·겨울'과 인디그룹 소규모아카시아밴드 '하이미스터메모리' 등도 출연한다.

대동출에서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송두울 교수의 삶은 그린 홍형숙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경계도시II'도 상영된다.

한편 이날 행사가 진행되는 5·18 기념문화관과 공원을 찾으면 17일 개막한 '전국민족극한마당' 행사 가운데 극단 아리랑의 '전국노래자랑', 두레의 '착한사람 김상봉', 한라산의

'백조일손', 한두레의 '밤꽃수레' 등 다양한 마당극 작품도 관람할 수 있다.

이야기 콘서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5·18 재단 홈페이지(www.518.org)에 신청하면 된다.

티켓은 공연 2시간 전부터 현장배부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아세안 전통오케스트라 광주 첫 선

19일 광주문화회관... 11개국 52개 전통악기로 구성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전통악기로만 구성된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이하 전통오케스트라)가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 추진단이 기획한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는 오는 2014년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예술커뮤

니티의 첫 프로젝트로 지난해 5월 창단 후 서울과 제주에서 공연을 가진 바 있다.

전통오케스트라는 한국의 가야금을 비롯해 말레이시아·캄보디아·인도네시아 등 11개국 52개 전통악기로 구성됐으며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을 거점으로 활동하게 된다.

5·18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오케스트라 단원 100여명과 박애리씨 등 협연자, 광주대학생 연합합창단 등이 참여하며 한국의 김성국씨를 비롯해 캄보디아·브루나이 작곡가 만든 곡을 연주한다.

연주회 첫 곡은 '진도 아리랑'을

모티브로 한 '빛고을 아리랑'이 장식하며 베트남인들의 사랑을 그린 '판타지 베트남', 각국의 민요 멜로디를 차용한 '사랑해요, 아세안'이 장식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중섭 '황소' 최고가 미술품 경매기록 깰까?

박수근 '빨래터' 45억2000만원

서울옥션 경매에서 '경신' 관심

이중섭의 '황소' 그림이 화가 박수근의 '빨래터'가 세운 국내 최고가 미술품 경매기록인 45억2000만원 경신에 도전한다.

서울옥션은 오는 6월 메이저 경매에서 이중섭의 유화 '황소'를 추정가 35억~45억원에 경매에 부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어두운 배경 위에 소 한 마리가 땅을 내딛는 모습이 역동적으로 그려진 '황소'는 종이에 그린 유화로, 소를 소재로 한 이중섭의 유화는 현재 홍익대 박물관과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품 등 10여 점만 알려져 있을 정도로 흔치 않은 작품이다.

서울옥션에 따르면 '황소'는 1972년 현대화랑(현 갤러리 현대)에서 열렸던 이중섭 전에 출품된 뒤 일련에는 처음으로 공개되는 작품이다.

교과서에도 수록된 '황소' 그림(홍대 박물관 소장)과 유



최고가 경매기록 경신에 도전하는 이중섭의 '황소'

사한 작품이지만 가로 51.3cm, 세로 35.3cm로 '황소' 그림(가로 41.7cm, 세로 30cm)보다는 크기가 크다.

서울옥션 측은 작품 도관이 흑백사진으로 실려 있는 1972년 현대화랑 작품집에 '작가가 통영에서 맨 먼저 그린 소'라는 해설이 붙어 있는 점으로 미뤄 '황소'가 이중섭이 통영에 머물렀던 1953년경 작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거래된 이중섭의 그림 중 최고가는 2008년 서울옥션 경매에 출품된 10호 크기의 유화 '새와 아이들'로 15억원에 낙찰됐다.

'대동문화' 우수 콘텐츠 잡지

한국잡지협회 선정

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이 발행하는 격주간 문화예술 잡지 '대동문화'가 한국잡지협회가 선정한 2010년도 문화·예술·종교 부문 우수 콘텐츠 잡지로 뽑혔다.

한국잡지협회는 최근 2000여 종의 유가 잡지를 대상으로 시사·경영·교양 등 6개 부문 우수 콘텐츠 잡지를 심사한 결과 '대동문화' '시사저널' '배드민턴' 등 54종을 최종선정했다.

'대동문화'는 이번 우수 콘텐츠 잡지 선정으로 전국적인 공신력을 얻게 되었으며 매호당 120권씩 연말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 잡지를 발행하게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JIN AIR flights to Osaka, featuring an airplane, a pagoda, and travel information.